고령가곡여ᄌᆞ들등님곡이라

고령가곡여　들등님곡이라

[해제]

<고령가곡여자들등님곡>이라는 『언간독』에 수록되어 있는 필사본 작품으로 순국문으로 표기되어 있다. 규격은 17*27cm이며 작자는 미상이고 현재 한국가사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다. 제목만 보면 규방가사류로 볼 수 있지만 이 작품은 규방에서 아녀자들이 불렀다기 보다는 풍류를 즐겼던 사대부들이 불렀을 만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여자가 어처구니없다는 구절로 처음을 시작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하며 자연에서 유유자적 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또한 태산 등 중국의 지명과 공부자, 태사공 등 중국의 인물을 인용하는 등 전고를 활용하는 표현법을 많이 사용한다.

[원문]

고령가곡여ᄌᆞ들등님곡이라
어와 가소로다 녀ᄌᆞ이 가소로다
심규의 좀긴몸이 즉님방젹 일을ᄉᆞᆷ고
소년힝낙 조흔흥미 오릉공ᄌᆞ 붓쳐씨라
우리도 이럴망칙 쳔상선녀 후신으로
ᄇᆡᆨ옥누 십이난간 월ᄑᆡ하상 노니다가
상졔게 득죄ᄒᆞ고 인간고락 엿엿히냐
ᄭᅵ맛촘 즁츈인ᄃᆡ 한식가졀 더옥조타
둥틱ᄉᆞᆫ 소쳔ᄒᆞᄂᆞᆫ 공부ᄌᆞ의 ᄃᆡ관이요
이십의 남류강회 ᄐᆡᄉᆞ공의 종란이며
현산의 일편쳑은 양호의 노든ᄇᆡ며
낭야ᄉᆞᆫ 취옹졍은 구냥ᄐᆡ수 취흥일쇠
등산님슈 경일망귀 겐들아니 길거우랴
아모리 녀존들ᄉᆞ 노럼조ᄎᆞ 양두ᄒᆞ랴
초초녀반 동류드라 어ᄃᆡ로 가잔말고
녹의홍상 고운ᄐᆡ로 오날이야 세상일쇠
쳔ᄌᆞ호 후ᄌᆞ응에 쥴쥴리 느러씨며
ᄉᆞᆺ썩거 손의들고 읍씬ᄃᆡ 올나가니
최고운 어ᄃᆡ가고 바독판만 나마고나
일말가야 망의청의 뉴뉴ᄇᆡᆨ운 ᄲᅮᆫ이로다
옥슈알 셔로좁고 쎄게알 둘러보니
노ᄐᆡᄉᆞᆫ이 기루ᄒᆞ여 가곡쥬ᄉᆞᆫ ᄉᆞᆷ겨고나
ᄉᆞᆫ남은 양이되고 산북은 음이로다
승양ᄒᆞ고 나ᄂᆞᆫ남ᄌᆞ ᄀᆡᄀᆡ문쟝 단졍ᄒᆞ고
승음ᄒᆞ고 나ᄂᆞᆫ녀ᄌᆞ ᄀᆡᄀᆡ얼골 아람답다
션ᄃᆡ의 올나셔셔 ᄐᆡᄉᆞᆫ을 구어보니
공부ᄌᆞ의 노신ᄇᆡ가 완년여족 녁녁ᄒᆞ다
오문의 한필비단 안ᄒᆞ의 보시거다
산명을 인ᄒᆞ여셔 고ᄉᆞ가 녁녁ᄒᆞ다

휴슈상종 우리붕우 어ᄃᆡ을 다시갈고
우ᄉᆞ을 도라드니 봉ᄃᆡ가 거긔로다
오ᄇᆡᆨ년 나려오며 ᄐᆡ평소식 젼ᄒᆞ거다
반가올ᄉᆡ 시리봉은 쳔년홈도 쳔연ᄒᆞ다
송풍은 실실ᄒᆞ야 거문고가 되야잇고
간슈ᄂᆞᆫ 존존ᄒᆞ야 슐거라ᄂᆞᆫ 소ᄅᆡ로다
ᄇᆡᆨ마ᄉᆞᆫ씸 건네보니 쥬죠셩쳡 ᄲᅮᆫ이로다
남졍강 져ᄇᆡᆨ귀야 옛일을 네아나냐
쟝군의 깃친터이 쟝단만 나마고나
십이쟝호 말근물의 얼ᄉᆞ우립 치어옹아
네경ᄀᆡ 훈가ᄒᆞ다 무ᄉᆞᆫ시람 이실소냐
장졔예 버들입흔 흥을게워 춤을츄고
지ᄉᆞᆼ의 져쐬쏘리 환우셩이 분명ᄒᆞ다
송음의 좀간쉬고 화ᄉᆞᆷ의 잠을ᄭᆡ니
졈심이 오난고나 지고이고 오난모양
들젹기가 분명ᄒᆞ다 그렁져렁 먹어보쇠
금강ᄉᆞᆫ도 식후경이 과년허인 안이로다
용당동 깁흔굴의 실용이 나단말가
만질깅감 깁흔굴은 쏘리박힌 터이잇고
ᄉᆞ악이 ᄭᆡ쳐지며 총벽이 즁즁ᄒᆞ니
실용이 좀기씰ᄃᆡ 몸을셔린 곳지네라
등동고이 셔소ᄒᆞ고 님쳥유이 부시로다

언간독

신부문안편지
아바님젼 샹ᄉᆞᆯ이
문
안알외옵고
긔후안녕ᄒᆞ옵신문안ᄋᆞ옵고져ᄇᆞ라오며알외올말ᄉᆞᆷ
하감ᄒᆞ옵심졋ᄉᆞ와이만알외오며내내
긔후만안ᄒᆞ옵심ᄇᆞ라옵ᄂᆞ이다
년 월초하로날ᄌᆞ부ᄉᆞᆯ이

고령가곡여　들등님곡이라

[현대역]

고령가곡여자들 등님곡이라
아아 가소(可笑)1로다 여자가 어처구니 없구나
심규(深閨)2에 잠긴3 몸이 즉님방적 일을 삼고
소년행락(少年行樂)4 좋은 흥미(興味) 오릉(五陵)5 공자(公子)6도 보내리라
우리도 이럴망정 천상선녀 후신(後身)7으로
백옥루(白玉樓)8 열두 난간(欄干)9 월패하상 노닐다가
상제(上帝)10께 죄를 얻어 인간의 즐거움과 괴로움이 엿엿하다11
때 마침 한 봄인데 한식(寒食)12 가절(佳節)13이 더욱 좋다
태산에 오르니 천하가 작고 공부자(孔夫子)의 대관(戴冠)14이요
이십에 남류강회15 태사공16의 장난이며
현산의 배 한척은 양호17의 노처럼 보이며
낭야산 취옹정(醉翁亭)은 구양태수 취흥(醉興)일세18
등산임수(登山臨水)19 경일망귀(竟日忘歸)20 아니 즐거우랴
아무리 여자들아 놀이조차 양두(讓頭)21하겠는가
초초녀반 동류(同類)들아 어디로 가자는 말이냐
녹의홍상(綠衣紅裳)22 고운 모습으로 오늘이야 세상일세
천자호 후자릉에 줄줄이 늘어서며
꽃 꺾어 손에 들고 없으면 올라가니
최고운23은 어디 가고 바둑판만 남았구나
일말가야 망의청의 흘러가는 흰 구름 뿐이로다
옥수알 서로 잡고 세게 둘러보니
노태산이 기루(妓樓)24가 되어 가곡주산 생겼으니
산의 남쪽은 양(陽)이 되고 산의 북쪽은 음(蔭)이로다
양에 오르는 나는 남자 하나하나 문장 단정하고
음에 오르는 나는 여자 하나하나 얼굴 아름답다
선대에 올라서서 태산을 굽어보니
공부자가 놀던 배가 완전히 아직까지 역력하다25
오문의 한필비단 안하(眼下)26에서 보십시오
산명(山名)으로 인하여 높음이 역력하다
휴수(攜手)27 상종(相從)28 우리 친구 어디를 다시 갈고
우(右)산을 돌아드니 봉대(烽臺)29가 거기로다
오백년 내려오며 태평소식 전하는구나
반갑구나 시리봉은 천년동안 천연(天然)30하다
송풍(松風)은 실실31하여 거문고가 되어 있고
간수(磵水)32는 잔잔하여 술 거르는 소리로다
백마산 건너보니 주조성첩 뿐이로다

남정강의 저 백구(白鷗)야 옛일을 네가 아느냐
장군에 깃들이고 장단만 나는구나
십이장호 맑은 물의 우립(雨笠) 쓴 취어옹(醉漁翁)아
네 경치 한가하다 무슨 시름 잊겠느냐
장제(長堤)33에 버들잎은 흥 겨워 춤을 추고
지상의 저 꾀꼬리 환우성(喚友聲)34이 분명하다
소나무 그늘에서 잠깐 쉬고 화삼(火蔘)35에 잠을 깨니
졈심이 오는구나 지고 이고 오는 모양
들젹기가 분명하다 그럭 저럭 먹어보세
금강산도 식후경이니 과연 허언(虛言) 아니로다
용당동 깊은 굴에 가느다란 용이 나겠느냐
만질갱감 깊은 굴은 꼬리 박힌 털이 있고
산악(山岳)에 울려 퍼지며 창과 벽이 중중(重重)36하니
가느다란 용이 잠겼을 때 몸을 사린 것 지네라
등동고이 서소하고 님청유이 부시로다37

[각주]

1) 가소(可笑) : 어처구니 없음. 우스움.

2) 심규(深閨) : 여자(女子)가 거처(居處)하는 깊이 들어 있는 집이나 방.

3) 잠긴 : 깊숙하게 박히거나 푹 묻히다.

4) 소년행락(少年行樂) : 젊어서 즐겨 노는 일.

5) 오릉(五陵) : 장안(長安)에 있는 장릉(長陵

6) 공자(公子) : 장안의 부귀한 사람들.

7) 후신(後身) : ①다시 태어난 몸 ②어떤 물체(物體)나 단체(團體)의 명칭(名稱)이나 내용(內容)이 바뀌어 달라진 뒤의 것.

8) 백옥루(白玉樓) : 문인이 죽은 이후에 간다는 하늘에 있는 누각으로, 문인이나 묵객의 죽음을 이르는 말.

9) 난간(欄干) : 난간(欄干). 층계(層階)나 다리・마루 따위의 가장자리를 일정(一定)한 높이로 가로 막은 물건(物件). 나무나 쇠를 가로 세로 건너 세워 놓음.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또한 장식(裝飾)으로도 삼음.

10) 상제(上帝) : 하늘을 다스린다는 신(神).

11) 엿엿하다 : 곡식들이 비가 온 후에 꿋꿋하고 생기있게 자라나는 현상을 일컫는다.

12) 한식(寒食) : 명절(名節)의 하나. 동지가 지난 뒤에 105일이 되는 날인데, 4월 5일이나 6일쯤 듦. 옛날 나라에서는 이 날에 종묘(宗廟)와 각 능원(陵園)에 제향(祭享)을, 사삿집에서는 조상(祖上)의 무덤에 제사(祭祀)를 지냈음.

13) 가절(佳節) : ①좋은 명절(名節)②좋은 철

14) 대관(戴冠) : 제왕(帝王)이 왕관(王冠)을 받아 씀.

15) 사마천이 20세가 되던해 낭중(郎中) : 황제의 시종)이 되어 무제를 수행하여 강남(江南)·산둥[山東]·허난[河南] 등의 지방을 여행하였다.

16) 태사공 : 사마천.

17) 양호 : 중국의 장수.

18) 구양태수 취흥(醉興)일세. : 구양수(歐陽脩)는 중국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으로, 자는 영숙(永叔)이고 호는 취옹(醉翁)임. 그는 저주의 태수(太守)로 있을 때 『취옹정기(醉翁亭記)』라는 글을 썼는데, 이는 저주현성 서남쪽의 낭야산에 있는 정자의 이름을 따서 지은 글임.

19) 등산임수(登山臨水) : 산에 오르고 물가에 나아감을 이르는 말.

20) 경일망귀(竟日忘歸) : 날이 저물도록 돌아갈 것을 잊음을 이르는 말.

21) 양두(讓頭) : 지위(地位)를 남에게 사양(辭讓)함.

22) 녹의홍상(綠衣紅裳) :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의 옷차림을 이르는 말.

23) 최치원(崔致遠) : (857~?) 신라(新羅) 말의 학자이며 문장가로, 자(字)는 孤雲(고운), 海雲(해운). 시호(諡號)는 文昌侯(문창후)임.

24) 기루(妓樓) : 창기(娼妓)를 두고 영업(營業)하는 집. 창기와 노는 집

25) 역력하다 : 자취나 기미, 기미 따위가 환히 알 수 있게 또렷하다.

26) 안하(眼下) : ①눈 아래 ②내려다보이는 곳.

27) 휴수(攜手)27 : 손을 마주 잡는다는 뜻으로, 함께 감을 이르는 말. 데리고 감

28) 상종(相從) : 서로 따르며 친(親)하게 지냄
29) 봉대(烽臺) : 봉화를 올릴 수 있개 되어 있는 곳. 봉홧둑
30) 천연(天然) : ①사람의 힘을 가(加)하지 않은 상태(狀態) ②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태(狀態)
31) 실실 : 소리 없이 실없게 슬며시 웃는 모양.
32) 간수(磵水) : 산골짜기를 흐르는 물
33) 장제(長堤) : 긴 방축(防築)
34) 환우성(喚友聲) : 벗을 부르는 소리.
35) 화삼(火蔘) : 장군풀. 여뀟과의 여러해살이풀
36) 중중(重重) : 거듭거듭으로나 겹겹으로 되어 있음.
37) 등동고이 서소하고 님청유이 부시로다 : 도연명이 지은 <귀거래사(歸去來辭)>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구절인 “登東皐以舒嘯 臨淸流而賦詩(동쪽 언덕에 올라 조용히 읊조리고 맑은 시냇가에서 시를 짓는다)”를 인용한 것임.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